

# 광주시교육청, '첫 학년 행복한 한해살이' 직무 연수

### 초등 1학년 담임교사·기초학력 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 모든 학생의 평등한 출발과 학습부진 예방 위해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동·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16~19일 나흘 동안 2021학년도 1학년 담임교사와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광주시 설치된 소강당에서 '2021 첫 학년!! 행복한 한해살이'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직무연수는 모든 학생의 평등한 출발과 학습부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2월 한 달을 '새 학년 준비'로 운영하는 시교육청의 정책과 연계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문해력·수리력 지도 방안, 교육과정 설계, 학생 특성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수는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수학교육(16·18일) ▲따뜻하고 지혜롭게 학생·학부모 관계 맺기(17·19일)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각 과정별 2기씩 편성됐고, 연수자들의 개인 일정에 따라 연수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수학교육' 과정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따뜻하고 지혜롭게 학생·학부모 관계 맺기' 과정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담당하며, 각 분야 전문가를 직무연수 강사로 초빙해 연수를 지원한다.

'한글문해교육 및 기초수학교육'은 한글책 읽교육 이해 및 문해력 신장을 위한 한글지도 교육자료 '뚝뚝글자놀이' 활용 방법, 수리력

향상을 위한 기초수학 지도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 '따뜻하고 지혜롭게 학생·학부모 관계 맺기'는 1학년 학생들의 마음 이해 및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맺기 등 1학년 담임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됐다.

일동초 김숙진 교사는 "1학년 담임교사로 배정받고 한글 및 수학 지도 방법,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다"며 "이번 직무연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수강 과장은 "기초·기본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이다"며 "기초학력부진 예방 및 학생 역량 신장은 담임교사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직무연수에 참석하지



모든 교원을 위해 관련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오는 26일부터 시교육청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다.

정이다.

조인호기자

# 무안공공도서관, 유아~중등대상 '도서관 첫걸음 독서운동'

### 전라남도교육청 '라이브러리 스타트' 권장도서 활용

무안공공도서관(관장 심미선)은 어려서부터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7세 유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첫걸음 독서운동' 사업을 운영한다. 총 300권의 전라남도교육청 제6차 라이브러리 스타트 도서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목록집 배부 및 다독자 선발 등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자 한다.

'라이브러리 스타트'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이 직접 선정한 단계별 권장도서 목록으로 유아와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도서관 첫걸음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6차부터 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무안 관내 학생들은 2월 16일부터 어린이자료실에 방문하여 참가 신청 후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목록집)을 받으면 된다. 이후 목록집에 소개된 권장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작성하면 담당 사서에게 확인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11월 중 일정량 이상 권장도서를 읽고 성실하게 감상평을 작성한 참가자 20명을 다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무안공공도서관 관계자는 "관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한 애정을 기르고 도서관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독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2021 무안공공도서관 도서관 첫걸음 독서운동 Library Start

참여방법

- ① 어린이자료실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후,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 받기
- ②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에 있는 권장도서 읽기
- ③ 느낌(감상평)과 별칭을 작성 후, 사서선생님에게 스티커 받기
- ④ 제출기간에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을 사서선생님에게 제출하기
- ⑤ 다독자 발표 기다리기

문의: 어린이자료실 ☎ 061) 452-6300

###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유튜브 실시간 연수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확대·운영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활용 쌍방향 화상수업) 연수를 실시했다고 16일(화) 밝혔다.

'e학습터 활용 쌍방향 화상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e학습터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을 그대로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기존의 소규모 학습관리시스템인 e학습터와 온라인클래스에 실시간 화상강의와 쌍방향 소통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일일 각 300만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고도화한 시스템으로 2021년 3월 1일 정식개통할 예정이다.

'e학습터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는 기존 e학습터의 온라인 수업이 교사 일방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단순히 교과 진도율과 학생 이수율만 제공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웹(Web)에서 동작하도록 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유튜브로 실시된 연수는 교사용과 학생용 e학습터 화상수업 서비스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사 및

학생의 접속절차 안내, 수업 준비 및 시작하기, 수업참여 확인 요청 및 결과 확인하기, 퀴즈등록 및 출결확인, 과제제출 및 확인, 문서공유, 질문하기, 발표하기 등 다양한 기능을 안내하여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e학습터 활용 쌍방향 화상수업 연수에 참여한 월산초등학교 이병대선생님은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기간에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에서 시의 적절하게 접근이 용이한 유튜브 화상강의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새학기 집중 준비 기간 연수 및 교육과정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e학습터 활용 쌍방향 화상수업 연수' 본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교원들을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남창의융합교육원 김정미 원장은 "전남 e학습터 활용 쌍방향 화상수업 연수" 등으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쌍방향 원격수업 활용이 기대된다"며 우리원에서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미기자

# 나주교육청, '배움의 향연, 아름다운 동행' 슬기로운 교사 생활 만들기

### 전라남도교육연구원·나주교육청 공동 주관 입직기 생애단계 직무연수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과 전라남도교육연구원(나영숙)이 공동 주관하여 16일부터 3일간 나주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 입직기(교직 경력 6개월에서 1년 6개월)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직기 교사의 짧은 교육 현장 경험을 성찰하고 나눔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강사로 참여한 관내 선배교사, 입직기 동료 교사와 교육 동반자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전라남도교육연구원과 나주교육지원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현장기획형 연수는 연수생이 과목 및 교수요목 설계 시 함께 참여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문화 이해, 학부모 소통, 학교 회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됨에 따라 연수생 참여도가 극대화되었다. 또한, 입직기 교사 생애단계 직무연수 강사를 나주 지역 내 교직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내 선배교

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연수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길 교육장은 "지역 특성과 연수생의 요구에 맞춰 진행되는 연수생 주도 연수가 배움의 향연장이 되고 교육 동반자와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져 슬기로운 교사 생활을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어 "전라남도교육연구원과 우리 청이 함께 추진하는 현장기획형 연수가 좋은 사례가 되어 다른 정으로도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